社 說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열자

—옴부즈맨 실시에 부쳐

우리학교는 대학발전을 위한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이를 대학발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학발전 제안 청취제도(Ombudsman)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사상 처음 있는 일로 폭주하는 정보와 다량의 제안, 산재한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요청되는 이 때에 매우 바람직한 일로 환영한다.

이 제도는 처음 1809년 스웨덴에서 실시, 정부기관과 관리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을 듣고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들을 두었는데 이들을 옴부즈맨이라 불렀다 한다. 이 제도가 줄더 진전되어 고용인과 피고용인, 대학당국이나 학생들간의 이견이나 문제들을 듣고 해결하는 정도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발달사로 볼 때, 복잡해가는 근대사회에서 서로가 만나는 시간이 감소되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데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같은 생각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으는 것이, 그리고 각 기관이 안고 있는 업무를 잘 알리는 것이 바로 그 기관의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대학이 진행시키고 있는 개혁과 경쟁력 강화라는 전환의 시점에서, 옴부즈맨의 실시는 시의적절하고 우리대학사의 큰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알려지기로는 다양한 제안들을 가능한 수용할 방침이며, 바람직한 제안이라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 한다.

그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의 신중하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 줄 것을 고언한다. 폭주하는 의견들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망 또한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소아에 집착하거나 집단이기주의의 그늘에서 떠나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사심없는 건강한 제안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제안된 사안들이 단발적이거나 즉각적으로 해결되리라는 성급한 기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 제안자의 의견 뿐 아니라 제안을 받은 사람의 처지와 견해들도 신뢰성있게 경청할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운영자도 의견이나 비판을 반대의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역사가 짧은 우리로서는 타협의 훈련이 충분치 못했고, 지나치게 흑백논리 또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 버리는 성급한 성향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일이다. 공동의 의사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개진과 그것들의 여과, 순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중의야말로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옴부즈맨 제도 실시의 진정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 기대컨대, 모처럼 시작된 이 제도가 소기의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동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자리돼야

—전학대회에 바란다

지난 28일 많은 구성원들의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총학생회의 준비부족과 중앙운영위원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전학대회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규변 사업계획을 모두에게 밝히고, 학생들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대학이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많은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를 앞두고 학생회의 역할이 그 어느해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기에 많은 학생들이 전학대회에 거는 기대가 컸으며, 대회 무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을 수 밖에 없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의 사업을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번 전학대회는 그 본래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그간의 사업보고등 아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만이 강조되어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은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를 앞두고 많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금 문제, 교과 과정 개편, 학원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등 많은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심도 깊게 논의 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대다수 학생들의 관심사였으며 전학대회를 통해 이러한 관심사가 논의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것이 이번 전학대회를 내용없는 탁상공론으로 전락시킨 주요인이 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와함께 지적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학대회를 이끌어가는 중앙 운영위원해들의 반목과 대립이다. 각 구성원들간의 정치적 견해차이나 학생회 사업에 대해 이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과 이견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감정상의 대립으로까지 비화된 중앙위원들의 모습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전학대회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원인이 되었을 뿐이다.

아무튼 총학생회가 지난 28일 있었던 전학대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많은 준비와 반성을 통해 오는 6일 전학대회가 다시 소집된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되는 전학대회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다수에게 강요하고 이해시키기 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대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루한 줄다리기 회의 전학대회

현장취재

학생회 · 중앙운영위, 의견수렴 아쉬워

"책임성 있는 회의 참가" 지적도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두 집단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지난 3월 28일에 있었던 전학대회(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 참가했던 물리학과 새내기 한기태군의 소감이다. 많은 대의원들이 이번 전학대회에 대해 전체 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한 대의원단의 회의장이 아니라 중앙운영위원들(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의 토론장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했다.

1차 전학대회는 처음 3월 24일로 날짜를 잡았다가 '각 대의원들에게 일반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 너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걸고 연기되었다. 나흘이 연기되었음에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준비도 불충분했고 일반대의원들도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지적이 높다.

회의는 예정됐던 5시에 시작되지 못했다. 5시에 노천극장에선 '우리 농산물 지키기 자주경희 운동본부'의 집회가 있었는데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여기에 참석했고 정각에 시청각실에 모인 대의원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회의는 회칙에 의거해서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입장해야 진행될 수 있는데 6시 30분쯤 돼서 전체 대의원 수 2백32명 중 1백38명이 참석하여 시작되었다.

중앙운영위내의 삐걱거림은 자료배포에서부터 나타났다. 총학생회 자료가 배포된 뒤, 총여학생회장과 문리대 학생회장은 보충자료를 배포하고, 총학 자료에 중앙운영위(단대회장들과 총여학생회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총학생회장의 의견만 들어감으로써 형평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칙개정부분에 있어서 개정 소위원회(회장 최경섭 법대 학생회장)의 활동내용이 빠지고 개정안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의견만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일반학생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바탕가지였다. 의장은 24일에 배포된 자료를 검토하고 단위내에서 토론을 미리 하고 온 대의원은 얼마나 되느냐는 의문을 표했고 대의원들은 공요일에야 나눠 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미리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대 학생회장의 발언은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의 입장은 다르다. 그런데 중운위 회의 때마다 총학생회장은 논리적 언변으로 중앙운영위들이 반박할 여지가 없게 해 놓고 교묘하게 회의를 자신의 입장대로 끌고 가 버린다. 총학에서 배포한 자료도 중앙운영위의 입장이 분명 아니다. 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부는 사과해야 한다." 중앙운영위 내부의 불협화음은 결코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며 다수가 한 사람의 논리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중운위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 또한 많다. 일반 대의원들 특히 신입생들은 사전 지식 없이 이날 배포된 자료집 하나에만 의존하는데 자료집 자체가 부실했고 단대학생장·총여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의 지루한 줄다리기에 일반 대의원들은 단지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 나온 한 대의원의 지적은 우리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학대회란 학생들의 이익과 생각을 대변하는 기구지 각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 대의원들은 자기를 대표로 뽑아준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고 이 회의에 임해야 한다."

〈엄정미 記者〉

학생 취업 조기 준비위한 제도 모색

업무 전산화로 학생들의 정보 이용률 향상 추진

탐 방 —— 취업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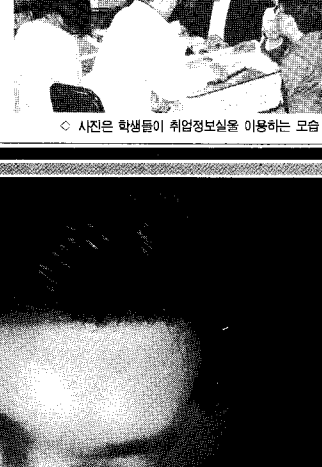
우리학교 취업정보실은 학생들의 취업을 4학년이 되어서 부랴부랴 준비할 것이 아니라 1학년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모색, 94년도 중점업무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취업정보실은 올해 업무를 크게 대(對) 학생 서비스 개선과 취업특강 및 기업 설명회, 산학협동체제 구축, 정보 수집 및 학생의견 조사, 홍보 강화, 행정력 강화, 시설 확충으로 잡고 있다.

이중 학생 서비스 개선 무분에서는 취업지도 위원회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았던 인성·적성 검사제도도 학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과에 원한다면 직접 강의실로 찾아가서 단체 검사도 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전문가나 유력기업 인사 책임자, 동문 선배를 초청하여 서류작성법, 면접 요령,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특강도 개최한다.

정보실에서는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2백개 기업을 선정하여 방문해 고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 사진은 학생들이 취업정보실을 이용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까지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의식조사를 줄더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작년의 경우 산업체 의식실태 조사 설문지의 수거율은 50%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각 학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거율을 높이고 신입생 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들은 분석이 끝나면 대학정책 결정이나 산학협동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그밖에도 학생 개인별 취업희망카드를 전산화하고 우편정보 발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고 학생들의 정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지난 30일 취업정보위원회를 통해 94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지었다.

효율적인 취업지도를 위한 취업정보실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지도업무 : 취업대상자 개인별 취업상담을 통해 진로방향 제시, 취업정보 전용 전산 프로그램 '이정표'활용에 필요한 자료 입력, 기업설명 비디오 테잎 제작 및 확보 △기업에 우리 학교의 인적자원 홍보 : 졸업예정자 인원현황 및 본교 안내 홍보 책자 제작, 기업체 방문, 기업체에 재직 중인 동문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리 △아르바이트의 활성화 : 지역신문에 우리학교 인적자원 홍보,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과 연결하여 아르바이트 알선 △취업정보자료집 및 93년도 입사사례 기출문제집, 상식문제집 발간, 취업특강 실시 : 93년도 년도 입사시험 분석 평가 특강, 면접요령,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특강, 여학생 취업특강 등의 주제로 4회 실시 예정 △취업관련자료 확보 및 취업정보통신망 구성 서비스 : 취업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열람 가능토록 함, 본교에 의뢰해 오는 기업체의 채용 현황을 교내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검색 가능토록 함, 매일정제사에서 개발한 취업정보 온라인 시스템 '스카우트'에 가입하여 다양한 취업정보를 활용토록 함 △교과과정 보완 협조 △단과대학별 취업지도 소위원회 구성 등이다.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남 · 녀 대졸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 인원 및 자격 총 1,089명

구 분	모 집 부 문	인 원	응 시 자 격
이 공 계	기계공학·전기공학·건축공학·토목공학·조선공학·산업공학·화학공학·전자공학·전 산 학 수 학·물 리 학	815명	●정규 4년제대학 모집해당학과 전공 또는 부전공자로서 9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1966년 1월 1일(석사는 6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 전학과	274명	

2. 전 형 방 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제 출 서 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2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1994년 4월 6일(수)~4월 15일(금)매일 오전9시~오후 5시 (공휴일도 접수함)
나. 장 소 : 현대인력관리위원회 우편번호 :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구세문화센터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 전 화 : 746-3232, 3233

5. 기 타

가. 육 · 해 · 공군 장교 출신자는 우대함 나.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현역 군복무중인자는 94년 7월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라. 국가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마. 신체장애인의 경우 전형과정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음.
바. 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하거나 HiDATE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

1994년 4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발표 예정 시기 : 5월 12일(목)이후 ●합격여부 조회 : 5월 12일(목)~5월 19일(목)
●발표 방법 : 합격자 개별 전보통지
—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 : 02) 700-2005
—현대전자 PC통신서비스(HiDATE) : 02) 725-6824
(HiDATE 미가입자도 이용 가능함)

모집회사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써비스, 케피코, 현대전자산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소,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세일석유, 열전석유, 현대정공, 대한알루미늄공업, 현대종합상사, 현대상선, 현대종합목재산업, 현대증권, 현대투자자문, 현대중기산업, 현대정보기술, 현대테크시스템

現代 인력관리위원회